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10.16.(일)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DMZ정책과 (DMZ정책팀)	과 장	설종진 (031-8030-2650)				
		팀 장	강승엽 (031-8030-2651)				
		담당자	이범구 (031-8030-2654)				

DMZ의 숨겨진 비경을 달리다 ‘2022 DMZ 평화 자전거 행사’ 성료

- 2022 DMZ 평화 자전거 행사, 지난 15일 파주 DMZ 일원서 성황리 개최
 -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전거 동호인 등 500여 명 참가
 - 임진각 생태탐방로, 남북출입국사무소 경유 DMZ 일원 64km 코스 달려
 - 군번줄 만들기, 타투 스티커, 기념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
- 올해 디엠지 런의 마지막 행사 ‘평화 걷기’ 오는 29일 개최 예정

경기도는 DMZ의 생태환경 등 세계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페달을 밟으며 비무장지대(DMZ)의 숨겨진 비경을 만끽하는 ‘2022 DMZ 평화 자전거 행사’가 지난 15일 파주 DMZ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개최해온 ‘DMZ 평화 자전거 행사’는 경기도의 대표 평화 스포츠 체험행사인 ‘디엠지 런(DMZ RUN)’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금단의 땅인 민통선(민간인 통제구역) 내를 달려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행사에는 역사와 생명이 숨 쉬는 DMZ 일원을 달리는 특별한 경험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전거 동호인, 가족, 연인, 친구 등 500여 명이 참가해 은륜 물결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임진각 평화누리를 시작으로 민간인 통제구역을 지나 남북출입사무소(CIQ),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평화누리 자전거길 등 총 64km 코스를 달리며 DMZ 일원의 가치를 체험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특히 어느 때보다 평화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자전거 행진을 통해 사

람·생태·세대 간의 차이와 장벽을 넘어 ‘더 큰 평화’가 한반도에 깃들기를 기원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축하공연, 군번줄 만들기, 타투 스티커, 기념사진 촬영, 특산물 판매 및 체험 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즐거움을 선사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에게 완주증과 기념 메달 등을 제공했다.

또한 자전거 전문가와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철저한 안전 점검과 위험물 사전 제거,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참가자들의 높은 안전의식과 배려로 행사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 행사는 한반도 DMZ의 생태·평화·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행사”라며 “경기도가 더 큰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디엠지 런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평화 걷기 행사’는 오는 29일 개최될 예정으로, 각종 멸종위기종이 살아 숨 쉬는 DMZ 생태탐방로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디엠지 런 공식 홈페이지 (www.dmzrun.or.kr)를 참고하면 된다.